

투데이

광주·전남 태풍 피해 4500억 넘었다

광주 남구, 순천·나주·곡성·보성·장성·무안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

태풍 '볼라벤'과 '덴빈'으로 인한 광주·전남지역 태풍 피해액이 4500억 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는 5일 광주 남구와 순천시·나주시·곡성군·보성군·장성군·무안군, 전북 남원시·정읍시·완주군·고창군·부안군, 제주특별자치도 등 13곳을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이에 따라 이번 릴레이 태풍으로 인한 광주·전남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9개에서 16개로 늘어났다.
전남도는 이날 "잇따라 불어닥친 태풍으로 집이 무너져 내리고, 농수

산물 시설이 파손되는 등 4060억원의 피해를 냈다"고 밝혔다.
사유시설 피해는 12종 2468억원, 도로와 하천, 상하수도, 항만, 학교시설 등 공공시설은 11종 1938개소에 1591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재민은 1816가구 3687명이 발생했으며 3명이 숨지고 17명이 다쳤다.
전남도는 이재민에게 공무원과 군인 등 연인원 11만9900여명과 장비 2800여대를 동원, 응급복구를 진행중이다.
피해지역 1만7729곳 가운데 1만 3290곳에서 응급 복구가 완료(75%)

됐고, 장흥, 강진, 해남, 영광 등 9개 지자체에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됐다.
하지만 전북 등 수산양식시설 피해액은 아직도 최종 집계가 이뤄지지 않았고, 벼 이삭이 하얗게 말라 죽는 벼수 현상도 심하게 피해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시·군별로 살펴보면 전북 양식장이 밀집된 완도가 544억원으로 가장 피해가 컸고 장흥 472억원, 해남 402억원, 진도 292억원, 신안 232억원, 영광 231억원, 고흥 213억원, 강진 212억원의 순으로 재산피해가 많았다.
광주지역도 이날 현재 피해액은

443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광주에서도 가로수 훼손과 간판 파손 등으로 443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이재민은 수백까지 겹치면서 1816세대 3687명에 달했다.
이와 관련 이날 순천시청에서 열린 전남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전남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은 "도내 전역이 피해가 심각한 만큼 일부 지역에 한해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을 도내 전지역으로 확대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채택, 전남도와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보냈다.
/오광복기자 kroh@

과거사 반성 없는 일본, 독일에게 배워라



4일 오후 나치의 태풍부터 유대인 탄압 등 참혹한 과거사를 생생하게 전시하고 있는 독일 뉘른베르크시 도큐먼트센터에 관람객들이 둘러보고 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뉘른베르크 역사기록관 '도큐먼트센터' 가보니

나치·유대인 학살 등 참혹 역사 전시 스스로 반성·성찰... 인권도시 모델로

/뉘른베르크=최권일기자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전 유럽을 폐허로 만들고 유대인 대학살이라는 참혹한 역사를 쓴 독일. 독일 내 한 작은 도시의 과거사 반성 노력이 과거사에 대한 참회는 커녕 오히려 정치적 도발을 일삼고 있는 일본 정부에 교훈을 주고 있다.

4일 오후 독일 뉘른베르크시 도큐먼트센터. 평일임에도 관람객들의 발길이 줄을 이었다. 독일 학살 단체부터 유럽 각지에서 찾아온 관광객들로 기록관 곳곳이 붐볐지만, 모두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지하게 아픈 역사를 되짚고 있었다.

도큐먼트센터는 독일 현대 역사 기록관으로,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이었던 나치의 태풍부터 유대인 탄압과 전쟁의 참혹함을 기록한 사진, 각종 서류, 영상물을 전시한

곳이다. 특히 센터는 히틀러가 전쟁 이전 나치를 규합하고 1935년 대규모 나치 전당대회를 열었던 대형 원형극장 일부에 설치돼 자국민을 비롯한 유럽인들에게 잘못된 역사의 교훈을 한층 더 일깨워 주는 효과를 거두고 있었다.

도큐먼트센터가 뉘른베르크시에 들어선 것은 이 곳 나치가 세력을 확장한 곳인데다 유대인을 반인간적으로 학대하고, 차별하는 뉘른베르크법이 만들어진 곳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이 법을 통해 2차 세계대전 당시 650만 유대인들이 잔인하게 학살당하는 참혹한 비극의 역사가 만들어지는 계기가 된 것이다. 이 때문에 독일 국민들은 이를 '테러'로 부르고 과거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성찰하고 있다.

도큐먼트센터를 만든 뉘른베르크시는 이러한 나치의 잘못된 역사를 교훈삼아 지금은 전 세계적

으로 손꼽히는 인권도시의 모델이 되고 있다. 마티나(여) 뉘른베르크시 인권담당국장은 "나치당 시절 유대인, 집시 등 여러 민족을 이주 민족으로 낙인찍어 차별한 정치적 역할을 했던 도시였다는 역사적 반성이 인권도시로의 출발점이 됐다"며 "무의적이고 강제적 조항은 없지만 학교에서 교사들이 자발적으로 나치에 학살된 유대인이나 전쟁 피해자를 추모하는 커리큘럼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고 이러한 내용들이 전국적으로 확산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동북아 과거사 도발과 관련한 질문에 "양국의 정치인들이 현명하게 풀어야 할 과제"라며 즉답을 피했지만, "이전 전 세계가 잘못된 역사를 반성하고 어떻게 새로운 역사를 맞을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cki@kwangju.co.kr

환경·시민단체 촉구

전남지역에 석탄화력발전소 건립이 잇따라 추진(광주일보 8월21일자 1면)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전남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5일 "고흥, 여수, 해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폐기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환경단체 등 124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광주·전남 신규 석탄화력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동위)'는 이날 광주시 동구 YMCA 무진관에서 열린 공동위 결성 기자회견에서 "광주·전남의 미래는 청정 해역과 친

환경 농업 등 '녹색경제'에서 찾아야 한다"며 "광주·전남의 녹색경제력을 파괴하는 시대착오적인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계획을 즉각 백지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7월25일 마감된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건설의향서에 따르면 전국 20개 지자체에서 핵발전소 50기 규모(50GW)에 해당하는 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을 제출했으며, 이 지역에서는 고흥(포스코건설 400만kW), 해남(MPC 500만kW), 여수(한양 100만kW)가 포함됐다.
공동위는 "발전사업자들은 석탄화

력발전이 '친환경'이나 '그린'이라는 이름을 붙여 눈속임을 하고 있다"며 "석탄화력은 연간 80만t의 석탄재 폐기물을 양산하고 초당 300t의 온배수를 바다로 방류해 해양생태계를 파괴하는 등 수많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발전사업자들이 수년 전부터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면서 고흥, 해남, 여수 등 지역공동체 내에서 찬반 갈등이 계속되면서 혼란에 빠져 있다"며 "지자체와 의회가 공동체의 갈등과 혼란을 최소화하고 문제를 풀기 위한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경민기자 kki@

광천버스터미널 일부 노선 승정복합환승센터 이전 추진

광주광역시 광천버스터미널에서 전남 서부지역까지 운행하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일부 노선을 2014년 완공되는 승정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해당 노선은 목포와 나주, 무안, 영암, 함평, 영광, 신안 등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현재 광천동종합터미널이 혼잡한데다 승정복합환승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일부 노선을 승정복합환승센터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광주시, U대회 경기장 발주 놓고 고심

직접 발주해야 지역업체 49% 참여... '총인 불통'에 눈치

광주시가 1500억원 규모의 2015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이하 U대회) 경기장 2곳의 발주방식을 놓고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광주시가 U대회를 치르기 위해 새로 지어야 할 경기장은 다목적체육관(900억원)과 수영장(600억원) 등 2곳으로, 대회가 열리기 전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면 아무리 늦어도 올해 안에 발주를 해야 하는 상황이다.
발주방식은 이미 탄기(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결정됐지만,

문제는 광주시가 직접 발주하느냐, 아니면 공사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느냐다.
광주시가 직접 발주하면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49%까지 높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조달청에 의뢰하면 지역업체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진다는 점에서, 지역에서는 광주시가 직접 발주하는 방안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광주시는 지난해 말성이

된 총인시설 입찰비리로 많은 공무원이 사법처리되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사를 직접 발주하면 또 다른 오해를 받지 않을까 눈치를 보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진선거 광주시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U대회 경기장 건설에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달청이 아닌 광주시가 직접 발주해야 한다"며 "외지업체가 공사를 독식하면 하도급업체도 외지업체가 독식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도 광주시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건설투자 축소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공공 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한 데다 공사원가 하락으로 수익성마저 악화해 힘든 상황"이라며 "U대회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건립공사에 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직접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발주방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제도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만큼, 이번에는 한 점 의혹도 사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체가 독식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대한건설협회 광주시회도 광주시와 시의회에 공문을 보내 "정부의 건설투자 축소와 예산 절감 방침에 따라 공공 공사 발주물량이 감소한 데다 공사원가 하락으로 수익성마저 악화해 힘든 상황"이라며 "U대회 다목적체육관과 수영장 건립공사에 지역 종합건설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광주시가 직접 발주해 줄 것"을 요청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번 주 내에 발주방식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라며 "제도나 문제가 아니라 운영하는 사람이 문제인 만큼, 이번에는 한 점 의혹도 사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

公認 漢字·漢文指導師資格
※教育部科學技術部 國家公認 研修生募集

구분	광주여자대학교(15기)	광주교육대학교(6기)
개강일시	·금요일 오전반: 2012. 9. 7.(토) 09:10 (특급반) ·토요일 오전반: 2012. 9. 8.(토) 09:10 (중급반)	·월, 목 아간반: 2012. 9. 3.(월) 19:00 (초급반) ·목요일 오전반: 2012. 9. 6.(목) 09:10 (중급반) ·토요일 오후반: 2012. 9. 8.(토) 14:10 (특급반)
모집기간	2012. 7. 26.(목)~9. 8.(토)	2012. 7. 26.(목)~9. 8.(토)
수업기간	2012. 9. 7.(토)~2013. 2. 16.(토) (6개월 2주 96시간)	2012. 9. 6.(목)~2013. 2. 16.(토) (6개월 2주 96시간)
수업시간	·매주 금요일 오전반 09:10~13:00	·매주 목요일 오전반 08:10~13:00 ·토요일 오후반 14:10~18:00 ·월, 목요일 아간반 19:00~21:00
수강료	₩350,000 (예금주:광주여대) ·광주은행: 148-107-307803	₩350,000 (예금주:광주교대) ·우체국: 503557-01-005018
수료특전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교명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위) 취득 기회 부여	·12단계연수과정 이수시 총장 명의 수료증 수여 ·국가공인 기관 한자교육 진흥회 회원지도사 자격 취득 기회 부여 ·각 전문학원 강사 추천 및 학원개설 가능 ·각급학교 교명 후 교육감서 추천 ·연수과정 중 국가공인 한자급수 (3급~사범위) 취득 기회 부여
원서교부 및 접수처	·문 의: 062)950-3582~4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WWW.KWU.VOYENS.ACADEMY http://always.kwu.ac.kr	·문 의: 062)520-4243 ·지도교수: 011-614-4160 광주교육대학교 평생교육원 WWW.GNU.EVENS.ACADEMY http://www.gnu.ac.kr/

50년 전통
북경당 한의원

항상 이웃과 함께 고통과 기쁨을 나누며 오늘도 동행한다
가문의 대(代)를 잇는 북경당 한의원
마음에 향기를 마음껏 풍기며 정성(精誠)을 다하는 모습
아름다운 꽃들의 꽃이여라 -김동신 일일부활제-

알레르기성 비염
축농증·코피 해결

한의학 박사 박상준 원장 / 동신대학교 외래교수 역임

9월중 확장이전

계명동, 전여고, 예술의거리, 금남로, 대안생명, 주자당, 세종약기, 한미소평, 김병원, 대인제동의원

문의전화 062)227-7575
*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080130-경-26%호

대출금리: 연5.5% ~ 대출금액: 1,000만원 ~ 8,000만원

공무원 대출

과다대출·캐피탈·저축은행·대부업체의 고금리를
이용중인 공무원을 위한 연5.5% 대출

이런분은 꼭!!
연락주세요

- 과다대출로 추가대출이 어려우신 분
-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실 분
- 카드론 현금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는 분

현재의 부채상환을 리모델링 해 드립니다

리모델링전	리모델링후
부채현황	부채현황
농협중앙회 70,000,000원	1년이자비용 4,600,000원
씨티은행 15,000,000원	2,1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1,170,000원
상생카드론 9,000,000원	1,880,000원
대부업체 8,000,000원	2,800,000원
SC저축은행 37,500,000원	11,200,000원
솔론저축 15,000,000원	4,485,000원
대부업체 20,000,000원	7,800,000원
총부채 180,450,000원	36,035,000원

리모델링후	1년이자비용
부채현황	6,750,000원
농협중앙회 100,000,000원	6,750,000원
씨티은행 40,000,000원	3,200,000원
지역농협 10,000,000원	4,500,000원
총부채 190,050,000원	14,450,000원

연5~15% 연체 추가비용 없음

하나로 채무통합 011-705-2230

등록번호: 2011-3430067-25-5-00028 주소: 대구 서구 평리로 215, 302호

함평다이너스티CC
신입 및 경력사원모집

사계절 푸르른 양잔디,
친환경 나비의 고장 함평다이너스티CC에서 함께할
직원을 모집합니다.

- 모집부문**
 - 웨이터, 웨이트레스, 주부사원(신입 및 경력) 0명
 - 주방보조 0명
- 자격요건**
 - 고졸이상 학력 취득자
 - 경력자 우대
- 급여**
 - 연봉제 1,900만원이상(퇴직금 별도)
 - 경력자 면접 후 결정(이력서 우측상단에 희망연봉 기재)
 - 주방보조 月 120만원
- 복리후생**
 - 대보험 가입, 숙식제공, 각종 수당 지급, 경조사지원, 우수사원 포상
 - 단체상해보험가입 등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주민등록등본
 - 면접시 최종학력증명서, 건강진단서, 경력증명서(해당자) 제출
 -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전형방법**
 - 우편 및 이메일, 방문 접수
 - 접수기간: 총원시(총원시 조기마감)
 - 서류접수 후 면접일자 개별통보
- 접수처**
 - 주 소: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산1-6
 - 당 당: 서울로터 이상욱 팀장 (전화: 061-320-7799)
 - 이메일: gyy0818@hanmail.net